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4월 7일 (제99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보증(保證)

보증(保證)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해줄 때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보증이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보증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잠22:26~27).

그런데 스스로 보증을 서신 분이 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했다. 그 증표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은행에 가서 보증을 서면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하듯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 것이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후1:21~22).

보증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에는 보증서가 들어있다. 그런데 보증서를 자세히 보면 보증기한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그 기간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원한 보증서가 있으니 바로 ‘성경’이다. 세상에는 조건을 달아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못 진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성경은 ‘이런 경우에도 책임지고 보장한다’고 책임을 다 떠안으심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믿기에 담대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기도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당신의 아들까지 죽여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인들 안 주시겠으며, 무엇인들 책임지지 않으시겠는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사 보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4월 첫날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춘계산상집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은 한 마디로 영적대축제의 현장이었다. 2019년 첫 집회를 맞은 기도원 대성전은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그 열기는 용광로를 방불케 했다. 집회 첫날, 한 시간 넘는 기도와 권재순 전도사가 지도하는 운동으로 영·혼·육의 위명업을 마친 후 등단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영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는 말씀을 붙시다. 거기에는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씀을 기록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대체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책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아벨은 오직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의롭다함을 얻었고,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의의 후사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아들을 얻었고...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봉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귀신을 쫓고, 오직 믿

니다. 인생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되다보니, 더는 믿음은 온데 간데없고 ‘오직 돈’, ‘오직 명예나 권력’이 되다보니 인생에 고통이 생기고, 썩는 것입니다.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레놓고 ‘하나님 탓, 예수님 탓’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계22:13),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고(히13:8),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마28:20). 믿음을 버려 변질된 가룟 유다조차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변질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2019 춘계산상집회(4월 1일~4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까요? ‘오직’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only’, 곧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는 말씀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음으로 선을 행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히11:6), 믿음만이 못할 것이 없어 저 산을 이리도 옮길 수 있으며(마17:20), 믿음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히11:1), 믿음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막9:23).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요1:13). 그러므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이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막9:29). ‘오직 기도만이 오직 믿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목사님은 소등을 하고 한 시간 가량 통성 기도를 시켰다. 그동안 ‘오직 믿음’을 등진 자들이 회개했고,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다음 주에 계속)

신묘수 전도사

jesus7857@gmail.com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몸도 마음도 튼튼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벧전4:7~11)



너희도 이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여러분, 생각은 마치 임신(妊娠)과 같습니다. 처음 아이를 갖게 되면 여아(女兒)인지, 남아(男兒)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차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눈이 생기고 손도 생기게 됩니다. 요즈음은 초음파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 달 후면 완전한 생명체가 되어 이 땅에 여아·남아로 태어납니다. 생각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생각은 씨와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으나 점차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형상인 생각이 점차 현실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상화된 모든 것들은 모두 비형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히11:3).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부모를 닮듯 결과는 늘 '생각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의 열매를 거두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공'이라는 자식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은 철저한 모순입니다. 그것은 마치 김 씨랑 결혼했는데, 이 씨를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몰고 다닙니다. 생각이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성경은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라"(렘6:19).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8:5~6).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일을 좇게 되어 마침내 사망이란 결과를 몰고 오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좇게 되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했는데 영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말을 대입해봅시다. '안 된다'는 생각은 실패를 낳고 결국 인생이 사망에 이르나, '할 수 있다, 나는 된다'는 생각은 성공을 낳고 마침내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살 것인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

사단은 이 공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저 '선악과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생각만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낙원을 상실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류 재앙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이란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소리의 속도가 대략 초당 300,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으로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우주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금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심각하게 나를 돌아다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늘 안 될까?', '왜 나는 늘 실패할까?' 경기가 나빠서? 여건이 나빠서? No! 원인은 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안 맺힌다고, 잎이 자주 마른다고 물만 주는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뿌리를 살펴야지요. 근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주면 더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욱 썩게 될 뿐입니다. 뿌리요, 근원인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풀리고, 내 운명이 바뀝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은 진짜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습니다.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미모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게 왜 못하느냐?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나를 보니까 생각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듣고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생각의 자식이 나와 고달프게 됩니다. 생각이 형상화되기 전에 얼른 생각을 바꾸십시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사건

이지요. 그때 마리아는 자신을 봤습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지?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생각해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자신의 생각을 천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왜 너는 믿음이 없냐? 그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 낳겠냐?' 이렇게 타박한 게 아니라 "네 친척 중 엘리사벳이 있지? 그도 늙었는데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졌단다. 누가 하겠는지 아니? 바로 하나님이 시지. 너도 같단다. 너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단다."(눅1:35~37)

라고 생각을 바꾸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 금

전 까지 안 된다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라고 생각을 바꾸어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리셨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눅18:27). 내 생각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늘 초긍정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형편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사55:8~9).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지만 돼지 내장을 양의 내장으로 바꾸면 절대 '꿀꿀'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토리 씨 안에는 참나무가 들어있다

자고로 사람 안에는 늘 두 마리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놈과 긍정이라는 놈입니다. 이 두 놈 중 어느 놈이 더 세냐면 먹이를 많이 준 놈이 더 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정이란 놈에게 먹이를 많이 줬왔습니다. 그래서 늘 부정이 긍정을 이겼습니다. 그 부정이란 놈이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자연적으로 긍정이란 놈에게만 먹이를 주게 됩니다. 부정이란 놈이 굶어 죽게 합니다. 그러면 긍정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열매를 얻게 되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만물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발하게 되고, 늘 가시나무만 나던 인생에 늘 푸른 잣나무가 나고, 질려 대신 화석류가 나게 될 것입니다(사55:12~13).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시며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말 이전에 생각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외모나 학력이나 문벌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이 이렇다는 건 생각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말이 어떤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열 두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막5:28)는 생각 때문에 나음을 받았던 겁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지분을 뚫어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발하게 되었고(막2), 고아인 에스더가 사촌오빠로 인해 생각을 바꿔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운전하는 자가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차가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후진하면 뒤로 가듯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일랑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생각 대신 '된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936년,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29분대의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2시간 30분이 인간의 한계이며,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심장이 파열되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계속 경신되었고, 머지않아 2시간의 벽도 깨어질 전망입니다.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처럼 인간의 한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복 주시려고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일을 넓게 열라!’, ‘믿음으로 꿈을 꾸고 도전하라!’는 주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역의 조장들이 구역의 배가 계획을 세운 뒤, “하나님 우리 구역 배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선포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배가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군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기도만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아 나서고,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들기는 것입니다. 메모지를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전도대상자 명단을 만든 후에 날마다 기도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한번 찾아갔다가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나 축복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받은 것을 감절로 만든 자들은 모두가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루는 자는 결코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배가 부흥을 위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달란트를 감절로 남기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 신앙논객 ::

변함없이 끝까지

며칠 전, 한때 유행했던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우연히 예전에 교회 활동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활동했던 영상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사진과 영상 속에는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도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이제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지체들도 더러 있었다. ‘애는 참 찬양을 잘했었는데’, ‘OO선배, 정말 열정적이었지’, ‘이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 녀석은 교회 잘 다니고 있을까?’,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중에 있었던 기도모임 시간에 교육목사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뜻보다 우선시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마라. 신앙은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누군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일에 매진했던 것을 깎아내리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전들은 대부분 길게는 수십 년의 연단과 인고의 세월을 거쳐 역사의 중심에 섰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00세에 아들을

얻었고, 아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했으며,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 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셨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았다. 총회장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점 중의 하나는 34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는 열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좋은 종일 뿐,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해외집회를 다녀와 곤비한 중에도 단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귀신을 쫓아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은 매번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시작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을 함께 하는 것은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지금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忠誠)하자.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자유 나래 펴라

개나리꽃 만개하고
진달래꽃 노래하니
아지랑이 춤을 추며
피꼬리는 노래하네
봄이 왔다고 개울가 얼음 내
물소리가 장단 맞추니
강아지풀 개구쟁이 부르누나
朋友

:: 생명의 말씀 ::

감사는 내 영혼을 지켜준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현미경의 관점과 망원경의 관점이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둘 다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점에는 공통적이지만, 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현미경은 실제로는 아주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확대해서 보게 만드나 망원경은 실제로는 아주 큰데 거리가 멀어서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것을 실제로 처럼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다.

우리가 불평할 때 그것은 내 인생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문제도 점점 커 보인다. 그래서 작은 문제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큰 문제로 확대된다. 그러나 감사는 망원경과 같다. 실제로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실제 축복으로 내게 확인되고 재발견되어진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높고 광대하심이 우리에게 (망원경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좋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

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때만 축복이 진정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속삭인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그러나 성령님은 매일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현미경으로 내 모든 인생을 매일 불평함으로 크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망원경으로 높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은 든든히 지켜지게 될 것이다. 어떤 영적 전쟁에도 쓰러지지 않게 되고, 내 마음 속에 평안함이 넘치며 그 가운데 나의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 내가 매일 기쁘게 ::

:: 올림 있는 삶 ::

정체기는 축복의 시간

지난 1월 초, 다니는 운동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이어트 챌린지’에 나도 참가 신청을 하였다. 지난 세월, 말로만 다이어트 노력을 불렀지 뭔가 목표를 세워서 감량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나에게서는 최초의 도전이자 신선한 목표였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챌린지에 집중하였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체중이 변하기 전에 항상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눈바디’이다. 체중계의 숫자는 변함이 없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말이나 거울로 비춰보는 내 모습에서 ‘눈바디’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체중이 변하기 시작한다. 한 달 정도는 신나게 눈바디와 체중이 변했지만, 2월이 시작되면서 정체기가 찾아왔다. 정해진 기한은 다가오고 체중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포기를 해야 하나, 그냥 2등으로 만족해야 하나?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여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면 좀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우습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기도를 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량을 늘리고,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일어나 걷고 또 걸으면서 문득 비구름을 기다리던 선지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응답받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던 무수한 성경 속 인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간절히 바라기엔 너무 작은 소원이었지만 챌린지에 참가한 마당에 그들의 간절함이나 나의 간절함이 더는 다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결과, 1등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버텼더니 챌린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 정체기가 사라지며 1등을 할 수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체기는 누가 더 오래 참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다. 비단 다이어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삶의 곳

곳에 쌓인 문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고 참아야 해결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아이를 바랐던 한나의 기도와 비구름을 기다렸던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문둥병을 고쳤던 나아만 장군도 인내심을 갖고 물속에 반복해서 들어간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인내와 오래 참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부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도,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다못해 적금을 부어 만기가 되는 것도, 모두 누가 더 오래 참고 견디느냐의 문제이다. 몸으로 체득한 이 깨달음은 피할 수 없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닮아난 기쁨과 영광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돈으로도 못사는 이번 경험을 통해 내 삶의 순간마다 찾아올 정체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전훈지 집사
ppjee@hanmail.net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 치우치지 않는 저를 ::

시인하는 믿음

“형통하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초임장교 병과교육을 마치고, 근무할 부대로 간 첫날, 부대장님과 면담 중 저에게 종교를 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소문이 나고, 저를 지켜보는 눈이 많았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중위 진급 후에는 주기적으로 야간에 당직사령(야간 또는 휴일에 지휘관을 대신하여 부대의 제반 업무를 책임지는 장교) 임무를 수행했는데, 차례가 되어 지휘통제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중위가 당직이니까, 오늘도 사고 없겠다.” 제가 늘 하던 말을 한 선배 장교가 오히려 먼저 꺼내며 퇴근 인사를 하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당연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기도로 당직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매뉴얼에 따라 순찰을 마치고 지휘통제실에 막 돌아왔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김상병이 ‘타는 냄새가 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그 병사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는 냄새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야간에 사람이 없는 장소인데,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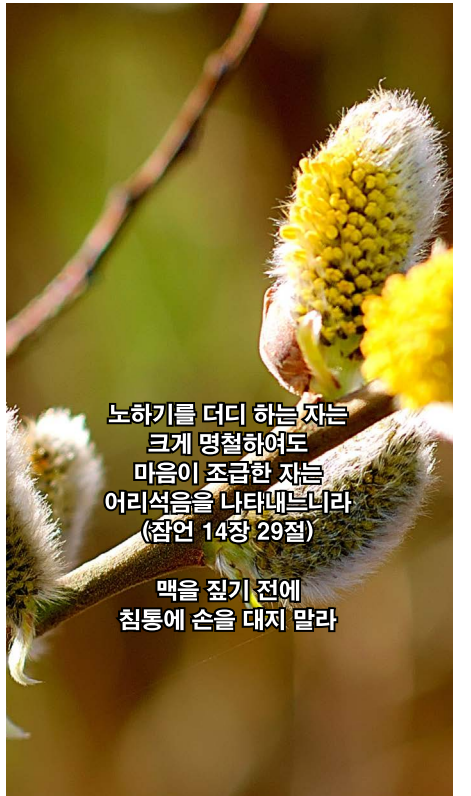
휴지통으로 추정되는 물체는 이미 녹아형체가 없어졌고, 불이 건물 벽으로 옮겨 불기 직전이었습니다. 급히 불을 끄고 나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만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있던 지휘통제실이 불이 난 곳에서 더 가까웠고, 불과 30분 전에 순찰도 돌았던 곳이었는데 저는 타는 냄새를 맡지 못했으나, 김상병은 불이 난 곳에서 한참 멀리 있었는데도 타는 냄새를 맡았으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김상병이 타는 냄새를 맡지 못했거나 귀찮게 여기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 보고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불로 번져 건물 안에서 자고 있던 수백 명의 장병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당직사령인 저에게 있으니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직 근무를 시작할 때 시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김상병을 통해서 큰 사고를 미리 막아주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찔했던 사연을 들은 선배 장교들이 “정 중위는 오는 불도 막는구나.”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으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군 복무하는 동안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속한 병사들이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항상 시인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떠나려던 날 밤, 급박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등병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

다는 것입니다. 황급히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이등병이 자살을 결심하고 한적한 곳에 줄을 묶는 순간,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선임 병사에게 발견되어 실행하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등병의 사연을 한참 듣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 후 한층 밝아져있는 그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도하고 시인한 대로 저에게 속한 병사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시인했고(삼상17:46), 도망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시3:3). 다윗은 처한 상황이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시인했고, 하나님은 시인한 대로 그를 책임져주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처지나 사람들의 평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꿈을 향해 다가가면 그 꿈도 나에게로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시인한 대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시인하며 한걸음 내딛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6) 정명관 성도 vic-777@naver.com

우리 언니

나와 네 살 터울인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구강구조가 심하게 벌어지고 튀어나온 해괴한 모습의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몸으로도 젖먹이 내 딸의 기저귀를 빨아주고 키워준 언니는 어느덧 근력이 더욱 쇠약해져 30kg의 몸무게로 부축없이 걷기가 힘들어졌다. 몇 달 전, 두 번이나 교회 예배 후 바지에 대변을 흘렸다. 그때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했다. ‘음식 먹을 때마다 흘리고, 운동도 안 하고...’ 언니에 대한 화를 스스로 키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때 내 앞에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바로 젖먹이 때 딸의 모습이었다. 시골 친정에 맡겨졌던 딸과는 1년에 한 달도 같이 지내지 못했다. 가끔 시골에서 올라와 머물 때면 가슴 곁에 토한 젖과 분비물의 냄새마저도 달콤했었다. 직장에서 딸이 보고 싶을 때면 그 향기를 되뇌곤 했었다. “그렇다! 바로 이거다. 언니를 내 딸로 생각해야겠다.” 극적인 생각의 전환점이 탈출구를 안겨주었다. 집에 돌아와 변을 본 언니를 맨손으로 씻겨준 후 보니 단정한 모습의 언니가 너무나 예뻐 보였다. 어릴 때부터 언니와 나의 통역사 역할을 해준 딸에게 흑여 엄마가 못하더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유언처럼 언니를 부탁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알았으니 엄마도 이모께 더 잘해드리세요.”라고 화답한다. 치아가 거의 없는 언니에게 오늘도 생선을 발라주며 “언니,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살자.”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니, 딸아이가 “엄마가 꼭 이모의 엄마 같네요.”라며 웃어댄다. 늦은 오후 한 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은 작은 함박꽃웃음을 피워낸다.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자고하지 않게 삶의 균형이 되어준 나의 십자가, 그 언니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다.

추성숙 집사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맥을 짚기 전에
침통에 손을 대지 말라